

대한민국 수산업 중심지로 도약 박차

도, 수산업 성장 전략 종합계획 수립... 미래산업으로 성장 위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 마련

청년어업인 육성·고부가양식 품종 개발·지역 특화자원 활용한 해양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비롯해 귀어·귀촌 활성화,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개발 등 도내 수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전북자치도가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 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업의 생산액을 2023년 7,926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산업은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촌 활력이 둔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연근해 생산량 감소, 원물 위주의 단순 가공 등 어려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어업인 육성 및 귀어·귀촌 활성화 △바다 생태계 및 원물 및 수산자원 증감 △양식업 체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수산 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등 5대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업의 체질 개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먼저, 청년 어업인의 육성과 귀어·귀촌 활성화를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 제고에 나선다.

청년,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업·양식업 기술교육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으로 귀어·귀촌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귀어 학교 개설 및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창업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어촌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 관리, 총허용 어획량(TAC)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 구축으로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전북특별법 수산 분야 특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시업어업·시험양식

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다양한 자원 관리 및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어초 설치, 해중립 조성, 산란·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생분해 어구 보급 및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 성장 양식품종 발굴 육성을 통한 양식업 체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개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과 전략품종에 대한 시험연구 집중화 및 친환경 첨단 스마트 양식 기술 접목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양식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및 토하 양식 특화단지 조성, 한디리새우 스마트 표준양식 개발 등을 통해 양식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모색하여 양식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산 식품기업 성공모델 창출 및 미래 유망 수산식품 사업화 지원으로 수산 식품산업 고도화 및 수산물 소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를 활용, 해양수산업의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해 성장 단계별 체계적 육성 및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과 상품화 지원을 통한 판로 확보 등 수산 식품기업의 성공 모델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등 산지 위판장의 위생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할인 행사를 통하여 도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어촌·어항시설 재생 및 지역 특화 체험관광 상품 개발로 어촌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생태·체험관광 확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및 어촌·어항시설 등 현대화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국립 해양생명과과학관 건립, 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갯벌 치유센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 개발하고, 광역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만호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 대폭 강화

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확산 차단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고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도내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 활동에 나선다.

울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과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농장간 확산 방지 등의 3중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에서 철거한 예방 및 주변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철새도래지 24개 구간에 대해 10월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 등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은 매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농가에 대해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농장 내 AI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발생 시 신속한 이동 제한 및 살처분 등의 조치로 확산을 방지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 경북, 강원 지역에서 8건의 발생이 보고되었고, 특히 전북과 인접한 경북에서 5건이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유입 가능성이 높은 6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제역(FMD)은 10월 중 하반기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하거나 항체 형성이 낮은 농가를 사전 분석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 사육이 많은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및 소독을 강화하며, 가축분뇨 이동을 제한해 구제역 확산 방지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에 도지사 표창장 수여
김관영 도지사, “어르신들 건강하고 품격있는 노후생활에 최선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청 공연장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서거석 교육감, 윤석정 전북예향본부 총재, 대한노인회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등 도내 어르신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백문화교육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함께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44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노인의 날”은 199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

사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2일 기념되고 있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예산 1조4,470억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인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노인의 날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서거석 교육감, 윤석정 전북예향본부 총재, 대한노인회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등 도내 어르신 8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행사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농업의 ‘名家’

전북자치도·남원시, 시설원에 분야서 ‘우수지자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시설원예 분야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도 분야, 남원시가 시·군 분야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전 분야를 석권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광역도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농업의名家’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설 원예 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산 집행률과 사업 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더불어, 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각 분야별 우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 광역도 분야에서 전북자치도, 시군 분야에서는 남원시가 우수지



자체로 뽑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국비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연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받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